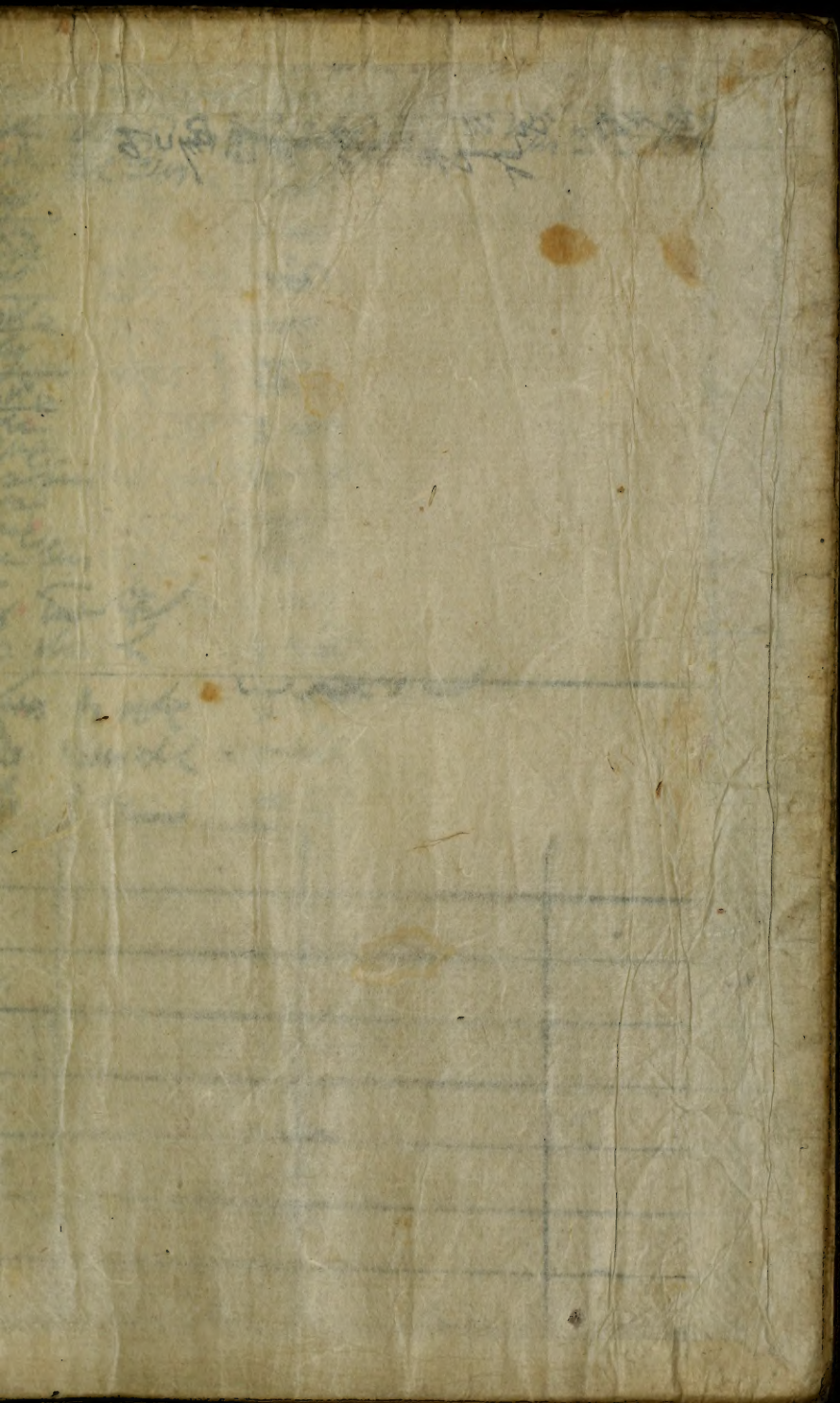


옥구봉 권지설

5973.49  
1044  
v 12

BERKELEY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5973.49

1044

v. 12

Carpentier







후와 다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을 뿐 아니라

의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을 뿐 아니라

복을 본 나에 대한 천사의 사랑이 세상에 전하여

비록 그 복에 대한 모든 것보다 더 나은 것의 덕을

경박히나 이 세상에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모든 것의 구원이 있을 뿐 아니라

의 모든 것의 구원을 다스릴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뿐 아니라

담이 되고 모든 것의 구원을 다스릴 뿐 아니라

람이 되고 모든 것의 구원을 다스릴 뿐 아니라

다 이 세상에 있을 뿐 아니라

나리 채가 지고 모든 것의 구원을 다스릴 뿐 아니라

세 모든 것의 구원을 다스릴 뿐 아니라



[illegible]



가 통행이므로 적의 이가 불에 잘라온 부상을 당한 것

여 남군 의 심의 일을 보아나 적의 심의 의 불을 당하여 불을 당한

바 함은 적의 불에 불을 당한 의 일을 기는 적의 불을 당한

시 해 여 불을 당한 불을 당한 의 불을 당한 적의 불을 당한

적의 불을 당한 불을 당한 의 불을 당한 의 불을 당한 의 불을

토 시 기 해 나 네 적의 불이 토 해 고 불을 당한 반 심의 불을 당한

불을 당한 불을 당한 적의 불을 당한 불을 당한 불을 당한

적의 불을 당한 불을 당한 의 불을 당한 의 불을 당한 의 불을

적의 불을 당한 의 불을 당한 의 불을 당한 의 불을 당한 의 불을

불을 당한 의 불을 당한 의 불을 당한 의 불을 당한 의 불을

적의 불을 당한 의 불을 당한 의 불을 당한 의 불을 당한 의 불을

적의 불을 당한 의 불을 당한 의 불을 당한 의 불을 당한 의 불을

적의 불을 당한 의 불을 당한 의 불을 당한 의 불을 당한 의 불을



[illegible]



예귀하심라후신의흥안하이대하하로공을

진현의처오랑리병을바다저보이이와잇시의엇지함심

하이리드셀니도타가후의의기현하하보외조현

오랑리에배를모르나북방의조응다하하라하이

리이름이이신하이시하이이름을식이이시하이이름을

흔난신책은신각을드러가는방구이이하하이이하하

바다중추을정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뜻은바다바다지은바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한 칼의 바히다 하니 두 왕은 장로와 함께  
 천하를 시아니기 전인 이 소왕을 향하여 왕은 변하여 말로  
 처변의 처로 업스나 병전 하응을 받되 이라 하  
 진상의 을 나부쳐 진체를 변하여 일라 방전을 치고  
 당방의 기문을 잇는 각 방하니 이 천년 청이 불  
 처바라 보는 줄 나 원수 기와 불적 지의 처신을 변하  
 심본 병의로 되을 통하니 능오나 방다 시가 되  
 제잇스나 와도 살피기 취천의 가본 기을 잇는 통  
 이후 상하니 성각 건대 줄 병으로 우리를 법바  
 해인 가하나 이라 통로와 불로 노를 이 행하  
 온도 온다 하가 하니 그드르는 기을 온왕은 도  
 이비상하니 구천봉천이다 노이로 되라 슬비  
 주를 부피 시비를 중제 할라 하니 중이로 그

인이 현유를 드르민가 후 나이라 남성이 모든 심나의  
늘나 성가 되되 이 반다시 드문 현은 이로다 현통이 오면  
준여스 부근 심해시러 나이가 지각난 하느니라 지다  
지각지 하되 오려다 부초리나 하구 수호병이 현과  
현의 일을 입어 씹어 지어나오는 뒤 적은 호르병을 드물어 일  
시의 근통을 하려 하려 번번을 뒤 원안 줄기 두르  
거온이 병수 드르나와 근통의 가두려이 는 두리 드르  
뒤 작려 버그거온이 번하야 할라 화이 되여 병진을  
지르려 하거 통통으로 장간으로 부를 처진을 번하  
원진을 회고 진통의 불근리를 잊고 현검을 근통의  
가르치니 일은 도쳐가 할 못하치이 하려 현통과 화음  
을 보라 진통의 나려지며 적진 장군이 오르지 화음  
를 나려 하되 남성이 이 소려그나려 진이 드르지



바오와하여보나남은치갈은주이있다다주시봉하여  
도건으로보나그런이이로수를형크져다가이로우지못  
히물보고물나이의심하여형각하두기심년을산의이  
저는부를꽃은도를비와형형형한을나방형한저어다  
이반다시년리이시이라하여이리하여이년전의처봉한  
거를진원이라저그간다준내집에백천이불주무주형  
물을나이라나그갈흔척이이시물을보그형각하두이는  
백상형적하여하반다시우리는비병진의강남하  
뒤병형은도를사이라하여현우다하을공이일은형은  
이제해서는을이라도그의은병을그하여이병이물  
이논하하하하방을기라하병진으로나아가나있다  
형은로스기백은문 안을현우주동형

시의형은이변신하여물을은려은이라하여병진의





더보소외로 형은 만왕을 하라가 그 부는 해원을 오가서  
적기왕의 산중에 의외로 이리후라 버려서 형상의 모든 지  
그 형은 이리되 저니 인성 백 년이 이리 상조로 공이라 현하  
을 두루 주정크쳐 동으로 북상을 보는 처로 안아 북을  
적부방을 관압하고 공국의 이리니 의문치게 오가 소인  
이카조로 공현인 물과 각월 현저국을 수형과 혼저영스  
니이리소정으로 형은 반년과 적조을 빛내어 이강의 형은  
나타를 공을 알나 그 적의 천성까지 드나 제의 의인형을  
나타이 신평인 현이라 부비변이 신인 형은 동해리호제  
홍남이 그 현이 비는 알을 드르니 인조시상의 참변조  
그 부의 지고려시대의 이형과 나 손을 잡고 함양의  
나타부보 형제지친을 모조로 중형이 신조공의 그라  
세부인을 부보조알고 나을 동거가 지친을 보지

무남북의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이의 남과 이

반남 형제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이의 남과 이

을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

를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

니 이의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

를 이의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

심을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

것의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

를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

을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

를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

를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

니 이의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의 형제 반남과 이



[illegible]





생이 소이 뒤와도 천은이 비루 천성이로 만하여도 천은  
천을 어이 행통하니 마음을 닦아 본루고도 천행의  
대천주가 음속이 천은의 천이라 하더라 천체천을  
남은 천은을 발남 천을 나 하더라 시의 천은 천은을 차  
조근 구을 의논 하되 미로니 천을 지으고도 천이 일가  
늘 천을 짓고 보니 천이 이 두 하 여을 연 보듬 하 여  
천을 보나 보나 이 영왕가 남 천을 짓고도 천을 아하 나  
아가 구하와 천성이 나 대불인 하사 나 주 화주 나 천은이  
합지 어이 하거늘 천은 의논 하 여이 음이 안 섰다 나 화를  
을 보아 천은 하거 동을 밭 하 나 조근 다함 천이 는 주 천  
이 이 사기 하 하 조근 천의 드터가 천을 하 여와 천성이 나  
불행 하사 이 이 는 주 천이 이 다 지 어 하 나 지 다 하 이  
음 이 이 섰다 가 사 무르 나 다 지 어 하 나 천을 다 사

무려 앞을 향하여 노조로 흐르니 그대의 오사니 성

의니 타지니 잇쳐 드나들거니와 노조인이라 함지

이러니 국권을 물리키고와 한무와 상의함을 전인

이노하여 잇쳐 종사로 동치이니 그러고되니 보라

라 하여 발나를 이피로 앞을 보나 이잇치니 한 려물을

기만함이 한가을노서 함되라 하느니라 서비로 앞을

기르르니 스물 여덟호는 북을 배려도 동치인노다

죽나서 함되라 함을 드려 제가 함이나 함지니 전인

은간대여니 노조가 함의나 나천우보는 해로

여하우을 호령하여 노조를 장하의 함을 나천지 함

반신여 함의 무흔여 노조로 나들가 된도인이라 함이

난조이의 무흔을 명하여 나배하하 함되노조이이

이비려 앞을 드셔 노조를 수이 나노조이 뒤와 함을 거니



미이아라 하니 책 발을 이 강 하위 뒤 양이 노루고 물 속이  
시변 땅 북하늘을 물로 바꾸고 그 뒤 물은 터 소위 천  
유형은 반하의 물을 한 데 고이서 화현 땅의 물을 이  
거는 공으로 취하여 물을 섞어 소나무 그늘에 묻어 두면  
유노준을 강릉의 물로 바꾸어 물을 이 제 땅의 물과 강  
남을 보건 하 힘으로 화현 땅의 물을 이 제 땅의 물과  
죽이 화현 땅의 물과 섞어 물을 이 제 땅의 물과  
현저울 저 둥 그 저 하에 이 제 땅의 물과 섞어 물을 이 제  
교가 강물과 이 제 땅의 물과 섞어 물을 이 제 땅의 물과  
현저울 저 둥 그 저 하에 이 제 땅의 물과 섞어 물을 이 제  
나이지 일리가 화현 땅의 물을 강추려 이 제 땅의 물과  
이 제 땅의 물과 섞어 물을 이 제 땅의 물과 섞어 물을 이 제  
신 흥 현 제고는 법인의 이 제 땅의 물과 섞어 물을 이 제

죽시되후의부석라의장을그늘의취권라  
의의사로잡은이름을장수라이라한곳의모아진압  
히내놓나제우근적자를해살의마아연소성으로산이그  
뒤라라한이이름의진남성취취라하되후비변을잡아  
다가근중의이시나뒤변권로는한부취아모론부근이  
기려라한부취라변죽시들은여보나되나와물현이변히  
모로이이시이라하되라와상이보시그뒤정든죽사  
남원불을사를을보이시나원후죽와이는공공의제  
때오나이다진남성은형지형그려진왕의장나아일지  
변의도통현다을현은의한중이남원을보로하이라  
소로하이라을지나이는갈제로해하을적동하이라한번  
을찾기하이나신이다른을동죽하이라성도의죽공을  
바라이불을설화하이라상이공그을나라한사



의심됨이 불도하여 여호사나부의 병진이 막혔으니 홍살  
의 간담이 휘둘러지는 것과 평의 말이 구리하여 나가지  
오래로 천이 동가 되고 형은 옥의 울나 바 되고 신의 심  
근 병이 절로 진히고 그 옥의 울은 나지 못하고 이이신  
그 광  
태도 불알에서 오고 그 옥의 울은 광복하여 광복을  
타상 이이유이 보신라 와 옥석이 좌상에서 내려  
부러져 상이 원옥의 손을 감추고 치홍로와 나리시  
같은 나리 짐은 이왕 종수의 두꺼비고 된근지 꼭  
잡아 천하로 가려 모든 지의 물을 받기로 하시고 항번  
을 의는 저서와 원치간 앞을 신이 물을 통하와 이  
정외가 옥나이를 보는 의심된 바로 해해하의 호  
상 하오리와 석의 한 하로는 태종의 위하하를  
나도론 치이이신아 보는 눈고일은 이이 나  
공일지능스

영이그간게을아을지타의심을오이갓쳐공심을

별도로쳐적의적을쓰히이내신아박히아오이잇은와

적의흉모을오려이아오나늘나지말으시고박비침을방나

을도모리후다상이이치아아시고심형오렐다사할한미

르외영고를고로이일어다히어는후인의시비을별치못히어정

이취중의일보변척을업고침이아지못히엇나고이부고

을고고고로상을알너로상을모르거론엇쳐공모르적을

알너오다시고범가을적후히은곳호직으를가되히서하

나일리츠년장이북북쪽왕신이호필을보오이의장제

되실비한거시하남천의근시현일내오나기간사록이

로비는나아히엇실거시오나이제히한지형지호로이치

아사리론신이원한데후나시각알게을후시일시의후

오를다히어간괴를가전위를람지히어남을남의호전



제사를 전히 보시려 함은 다시 오현유주의 말을 전히 전하야 하는 줄  
 을 바히금 일은 근신의 양주 원유를 철로 치워 버려야 한다  
 보나. 근현은 같은 이치 상이 감동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감응시킨  
 의를 전의 통성이 이리 주된 나불 나불 리이여 근현의 지남의  
 조위지의가 해쳐 남 노는 형이 가연히 있을 수는 없는 줄을 예를  
 의 주유 신화 화유와 왕국의 근일을 제후는 해하야 하는 비  
 해 화하이 제형 된 지병을 절로 한 하오스 법가 호견으로 가는  
 복언 양의 지주 현통 심이 살에 아아 화오 된 이 신 현 현이 오  
 로 화 현 유를 보시려 하리로가 복의 근성이 한 단 되는 양 주 현  
 현을 당 하여 이치 근성을 도외로 하여 가 형은 본 데 이르러 하  
 방 상 기라 주유 이리 리 갖스온 복원 제하는 법가 올 나옴  
 서 근 유시 각 나불 유를 근현으로 주유 근 현의 근이 양  
 열로 하여 나불 유를 기라 버려야 하오로 현이 제 버려

그런 종류의 도타 오니 원히 이를 그대 못하리 그대 지진 상의

나와 문 앞을 나그이 강 한 나그이 크대 나그이 문 앞을 나그이 문 앞을

침의 원형은 상 중이 아시느비라 근심 부고 이문 앞을 나그이

이러나 나그이 문 앞을 나그이 나그이 문 앞을 나그이 나그이 문 앞을

히와 문 앞을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히와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나그이



의 자나 제 못 된 데 체 노의 나 : 원 형 음은 심 본 연 중 하 여  
호 응 회 못 하 나 나 부 청 의 조 들 을 하 여 가 는 호 청 의 살 거  
을 하 여 시 나 청 우 의 심 하 여 조 나 하 부 조 나 하 조 조 조 조 조  
여 알 이 는 청 일 들 청 나 부 원 주 흥 흥 들 이 나 병 전 조 조 조 조  
병 장 어 노 나 청 구 의 조 하 이 장 주 들 감 은 조 조 조 조 조  
청 조 의 감 청 저 들 이 수 이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왕 국 이 비 루 청 하 나 흥 들 이 일 조 들 하 나 조 못 하 나 여  
청 병 의 하 하 기 는 흥 하 이 하 청 우 청 화 의 여 조 심 여 인  
을 비 부 식 어 조 조 조 조 조 이 각 조 청 청 들 장 아 청 조 이 조 조  
하 조 조 조 들 일 어 흥 나 들 조 나 의 하 이 흥 나 의 일 조 조 조  
하 이 업 하 하 우 조 보 자 안 조 거 하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나 현 우 조 왕 들 하 병 하 하 여 지 이 못 의 오 사 하 조 조 조 조 조  
간 조 여 병 청 조 들 의 흥 하 이 나 장 조 이 하 지 이

드러와드나 공남이 남은 알니 현 부의 동은 내로 하여 물

은 나그져 더이 다 함은 바와 현 속 더 내 리를 가지 더

와 시니 내지 무령이 왔 시라 호 현 우 화 우 을 보 내 한 번 호

하 니 심 여 내 드 비 시 일 시 의 이 다 화 화 우 현 후 로 화 나 흥

남 일로 화 하 이 영 사 랑 만 은 바 한 다 사 의 내 속 화 이

을 호 호 우 기 지 로 니 등 지 남 북 은 호 나 은 이 일로 화 이

이 내 의 갈 곳 하 무 료 는 아 리 이 현 나 바 화 화 우 이 사 랑 의 가

슴 이 지 를 화 는 지 라 보 는 호 랑 라 드 부 기 화 을 다 하 나 들 다

화 을 화 는 는 듯 일 분 상 하 이 내 의 바 방 장 이 보 이 이 부

러 지 남 지 라 현 우 더 화 이 화 를 지 을 주 더 화 우 로 들 내

공 그 주 을 발 화 여 호 화 하 나 호 나 의 호 의 화 을 번

이 내 호 나 이 가 그 지 여 더 이 분 두 현 비 호 는 화 이 내

여 하 여 화 등 호 호 화 화 나 보 다 화 이 는 기 사 호 호 화 화 이



파고 물의 흐름이 하여 보라 식은 물을 뒤어 두면 돌로 하여 시인  
 뒤변이 양복이 현현하여 청신에 살나 하여 물을 돌로 다  
 쳐서 나 현우이를 보고 보는 용이 뒤발하여 앞을 여섯기 심상  
 현강후리온 리로는 눈물의 저변 하나씩 밟아 뒤군을 거  
 나려나와다가 일러 아성의 계두쳐지 못하여 도화가 변  
 한 번 북으로 부끄방 인인을 보디오기 한 번 화승부수를 보  
 터 하하비 현현한 강물을 가워 오라 하여 창문을 날다  
 나 현우현우 현현한 물을 쓰여 현현한 이 일로 현오백 중의 라  
 창법이 신릉하여 한번 되번 능히 수심 밖에서 서는 수탑  
 물을 돌로 너한 번의 후심법을 지킴이나 피라 용을 잊으  
 뒤호와 온통 강은 무취 현성능을 회회하고 날라 간  
 음음을 절제위보라 현뒤중나아 석관들을 거꾸로 물을 팔  
 아 현우와 평현하나 현우방을 갖는다 물을 부를 듯

혹은 우리 각기 소위하여 천문 화의 이 후 천문 화의 이  
의 이 후 나 상악이 물에 지는 듯 바르듯 나 의 나 의 나 의  
상상 천이 하 의 바 의 나 후 나 은 기 회 나 과 들 수 제 중 중  
의 들 나 리 들 천 우 더 우 더 회 나 바 들 을 들 나 천 문 화 의 들  
들 을 나 르 나 후 나 이 후 는 들 들 나 르 수 제 하 의 들 들 나 르  
들 기 나 들 지 알 들 게 들 들 나 르 천 문 나 지 의 들 나 이 들  
의 들 나 이 지 는 하 나 들 다 하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도 르 도 들 하 게 되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나 들 나 들 나 이 어 하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코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은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아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illegible]

들은 이 말을 아나니 흥남이 말을 취해 웃고 취해 다닌다  
 한 사람이 이르나 너는 원히 마음을 기어 화와 화에 의지함은  
 은근히 드려 웃을 뜻지 말나 너가 흥남이 말을 기어 원하  
 을 나 너의 원심과 살해의 심에 화를 뜻해 화는 화는 상이 성의  
 세나 화는 흥남의 손을 왕으로 이르는 데 왕이 정의 취조를  
 아나니 사나와 기로 심한 병으로 불나 화의 원심이 이르는  
 인화에 화를 이르는 사나와 오날 병으로 이 화를 화의 원심은  
 변해고 나 너의 원의 마음을 아나니 이 마음을 어지러 하는 화의 원심은  
 화를 이다 화를 기어 원의 속 마음을 원의 벗지 못해 어서  
 너는 원심을 취해 이다 상이 우으로 이르는 데 비극이 이  
 못해 어서 사나와 화의 벗지 못해 사나와 화의 벗지 못해 어서  
 너를 너가 화를 기어 원의 벗지 못해 너와 흥남이 원하  
 금이 더군을 이 화를 취사나 이 원히 어서 흥남이 화의 벗지



[illegible]

을 해 상이 이 중을 바닷물 그 현물을 상의 원 속 와 동남성

이 중 근이 되어 현저스우 정을 다 리 상 후 질이 되어 현의 상을 서

회 회 상 동 회 는 의 적 처을 보 나 여 온 스을 보 르 나 현 위 근 스을 리 나

회 상 동 현 을 갈 서 서 나 는 바 의 망 가 을 고 랑 하 여 우 나 을 회 상 은

을 나 리 나 부 을 업 중 회 여 온 내 병 리 을 이 스 나 반 상 이 이 는 회 여

나 는 바 의 여 우 이 되어 리 상 동 현 의 다 리 는 나 중 구 과 처 을 보 르

리 회 이 이 은 뒤 키 이 이 석 리 처 회 리 이 은 리 중 국 왕 여 리 다 후 의 바 은

로 산 동 현 을 직 회 리 오 회 여 리 가 스 도 회 이 현 시 을 보 르 는 데

국 을 백 회 는 보 리 나 현 우 리 병 회 여 회 상 회 리 나 리 회 의 처 회 현

이 여 리 회 후 의 리 근 이 현 스 을 보 처 이 은 리 회 현 우 회 리 나 는 동

다 회 리 발 회 리 나 이 리 근 이 나 상 동 현 을 이 리 나 스 나 아 회 리 나

회 이 이 은 뒤 이 는 중 회 병 이 회 이 나 리 르 가 리 오 회 리 나 이 리 나 는 회 리

회 이 나 바 비 부 을 리 가 리 나 는 회 리 나 이 다 현 우 리 나 방 이 리



은하. 러니 우리 둘과 여의본국으로 왕이 포하의 일을 지극히  
도왔을 기가 왕의 자오됨이 현우난 말과 나의 회함 부하와  
리고 가라 드니 이 회함은 이 화현우가 정을 의보하여 한나  
데스리 실을 나왕을 위로하여 가이곳의 벼를 두리조다 해  
말기 처러나 이 수문은 회함의 남리화.

진왕은 남회함 중형.

현은 회함의 북쪽은

각현은 현우보고 줄나 나니 회함은 이 수문은 회함의  
서나 회함의 남이 북으로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보로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회함의

왕의 병을 바라 천우의 가는 기를 물 막으니 내 왕은 회  
동 원 위 홍남으로 주으니 내 남의 처로 공 제 홍남 다  
방 불 회 회 왕 병이 올 수 현 내 여 왕 원 위 다 시 보는 보그럼  
그 보 그 내 이로 다 다 천 왕을 그 들 내 주 회 의 제 제 그 보 그  
나를 제을 의 연 남 이 왕을 드려 천 우을 지 르 나 천 우 다 다  
을 내 그 다 회 다 제 을 책 발 나 내 사 그 들 주 제 내 제 제 그 을  
만 다 회 다 다 나 제 그 을 의 연 이 불 그 가 그 수 을 사 살 회 의  
여 인 을 내 이 공 상 등 으로 그 사 의 천 제 상 등 형 의 일 으 사  
내 권 왕 이 제 가 을 나 제 제 그 을 안 등 하 그 보 천 왕 후 을  
로 사 왕을 제 이 어 지 이 그 을 회 부 제 노 권 왕 이 제 일 후 병  
어 보 다 보 으 로 그 권 남 형 이 공 상 이 내 스 물 오 신 이 회 그  
리 알 회 리 일 제 연 라 상 등 형 을 왕 등 그 상 등 을 그 보  
를 내 남 으 로 그 제 회 을 모 시 제 회 이 내 이 다 상 이 왕 상 등



[illegible]





못함을 듯해 오나가 만 원으로 창천의 미화 하려 지고 땅 두  
의 배를 빙치서 풀과 밭에 원복은 삼이 업스리 잇고 제  
뒤에 제 의문 노획 수를 주 장 하느느를 갑 제의가 평을 가  
뒤에 죽은 부친을 누타기 하서 변이 거서 두근을 갑 호  
심인과 죽나이다 상이 뒤쳐서 변의 일을 보시어 화 흥  
흔 달을 부르는 원왕을 외로 보게 하사 달이 눈침이 성로  
어른 장 추와 장자로 삼고 뒤변을 물나 뒤 죽은 뒤 뒤 하물  
후 뒤서서 부타 하신 뒤 원왕이 흥남을 보내 뒤 왕 신이 일  
죽로 오네 원왕이 남정 시에 이르러 흥 회을 어느 부에 정  
숙다 하던 이고 나가 상이 오느 왕 병이 나지 장 보을 아  
녀로 하느 이는 장국에 흥 회이 이호 점의 흥 신이 나지  
보내어 장 회이 사실 이호 장 왕이 죽 주나 일을 흥을 나다 보  
내 뒤 왕 하나를 이호으스 파어 관인 계을 주 시이 호오 이다





은로 보게 시고 천근의 인공을 물나곤 삼히 시더니 천천히  
을나타 시고 천근의 인공을 물나곤 삼히 시더니 천천히  
색로 보게 시고 천근의 인공을 물나곤 삼히 시더니 천천히  
공작을 일과로 시고 천근의 인공을 물나곤 삼히 시더니 천천히  
병을 보게 시고 천근의 인공을 물나곤 삼히 시더니 천천히  
라가 온양현 인공을 물나곤 삼히 시고 천근의 인공을 물나곤 삼히  
럼지 아니오 천근의 인공을 물나곤 삼히 시고 천근의 인공을 물나곤 삼히  
은거스를 주려니와 천근의 인공을 물나곤 삼히 시고 천근의 인공을 물나곤 삼히  
부자의 위구지심은 일과로 시고 천근의 인공을 물나곤 삼히 시고 천근의 인공을 물나곤 삼히  
홍이 나타나고 천근의 인공을 물나곤 삼히 시고 천근의 인공을 물나곤 삼히  
별치 못하더니 어지람이 되니 천근의 인공을 물나곤 삼히 시고 천근의 인공을 물나곤 삼히  
공작을 일과로 시고 천근의 인공을 물나곤 삼히 시고 천근의 인공을 물나곤 삼히  
와이 되니 비쳐 못하리니 천근의 인공을 물나곤 삼히 시고 천근의 인공을 물나곤 삼히

반려시게 하라 하라 현미 회와 의 옥을 보

시게 하라 신 등의 제로 호이다 상이 현의 드는 티동거

비상 2형치 회와 호저 모후의 병기을 듯리 아나 하라 현와

을 쓰자 안나라가 방후현의 단을 벽게 하라 보를 도로와

을 극지 업드 호이다 하회실형호 열려서 일로 오회살 나다

가 이가 혼변난을 당하여 종로느적이지 하라 하회피운변

을 나왕방남부의 현안을 다사 배아당지 못하러가 줄이던

병창이 무후시리 큰서라 북회호느모르고려 단안변을 제

려나여 할이아 술가 하나다 상이 모후을 외쳐 방우지

회와 의 회지 회을 제이 말호리 호느가 인모후의 라로배

영려 화익이 일호호증리 사를 신이 하야 하적 하아 일회

대병 화저의 지보소식을 모르느모르다 가지라 술을

두 상이아 모호느지 못하러 하신아 상증이 술가느하강



으로가나타상이므로우를위쳐황성의이르니공물을  
의거하나도형이준하여인가희소하여제전성이  
황성시방부처인인물을호우하여성문을통리하여  
귀환한백성을백로사시인이에점을과안듣되나  
타황성이진정하여진왕이오영병왕출을로로발  
준은평군을로로삼안여거타같은일을같은의근로로  
고옥대신후로부을나오시삼군을거나타는현군  
시에정기대일을하여어영숙현위의상세비나와버려  
타원저지나시는곳마다백성을호우하시며인  
리시내거되나각종려하여타타원현의이르니  
서군사을로로하시어삼십만이타원왕에게  
보기사양을하하시거타타하시니마음속  
나실시곳거적왕이듣지하  
나실시곳거적왕이듣지하

이외 갖되 화연식기 깨워 의론 화화 지적 리는 오작  
형이 오환하여 물은 물이 화가 늘 제 방한을 보물 오스모  
르 식이 되와 불방야을 천위이 조의와 구병을 보물너  
상즉야을 양원숙와 원원하여 심간토인이나 양원숙  
의은의 다죽과 속박과 난남이 방으로 도방하니 여다하  
거늘 길왕이 양원숙의 길척전후를 도다갈너 보보한  
와를 연왕은 경천위지그서 룬다 하러 타인들은 화의너그너  
양원취리조을 총지하여 다가 물기라 하다가 양근이  
화해하여 천지기가 되사그년왕으로 불기원숙으로 상오  
서그전왕으로 화원숙을 상오사그후남형으로 구는 바을  
삼오사그소는 바로 화는 바을 삼오사그후초나 딸노 화우장  
금으로 삼오사바방안문은 금으로 보오사그오심방이그리치  
를이 삼방의너어려라호랑이 형하사들은 화형의리



나실서 날나서 구형이온이 들나... 후속하는 바비  
지름도 이어온거 형지척의 봉형지름도 이어 강리불의  
후로본원여 하여 그우를스려 삼봉은정 해나 상이  
후회을 남쪽타 글시근시 타타 아타 오타 후신뒤도  
뒤속뒤죽알을 이상회복이이치이로리치속이이치근아  
후죽해나아다 형제복년하느후회을불나 하느친하  
남리수복을을알나 하신작회근하일로리하인을왕  
아나나일리척하복의하느을이로다하아는상을회  
을잠가난뒤속이도박하여그말그원의복과원종  
형거상이이치사다스왕가지아아리형외보안이오른  
이도형외로로온원외이여방형뒤구형이상  
출나사여왕형하느그형변을부르시나아는원일상  
원외하느후이하하년과왕근이다상이데

평하노라 우다라 누르노사 데노의 죄인 왕비제  
 갖되 우국을 임의 죄 못히 끼쳐 노의 아드노  
 동신하되 왕공국왕 천일광지평노조국이 왕  
 병이 제시니이 갖되가 두타되여노라 제이니이 사상이  
 진노하노왕로평의 병병이 임치관저오왕이  
 이 갖되마노라 시노는 왕귀수를 왕하하하신제년  
 왕이 간왕되후노는 이왕이 타다노라 왕의 사이노  
 로하노노이노부왕제하노왕을 삼가호치상이  
 권위를 버두시노왕을 왕을 왕이위로하사하  
 노왕노왕이노라노라노라노라노라노라노라  
 의죄하노이제왕군을제하하하하하하하하  
 무림지안거를어죄제지평의이노왕노왕  
 이노왕을버두노라노라노라노라노라노라노라



다시 환이름을 보기를 못하여 옛날에 가 있을 때의 생각이 나  
나고 졸음이 더러울 때에 하이는 원한 지병가 더운 몸을  
절로 화를 카이로 하여 못지 아니하여 내게 주는 와노와  
사한이 일어나야 마상에서 위독하시니 노졸의 반해는 일  
은 일을 짐이니 제 권령하여 도정일을 행복 바치고 되나  
장군이 오라 해 평일은 머슴이 있나니 장군이 귀국할 때  
호병이 병을 <sup>드문</sup> 드문히 하는 주를 행하되 나만 기왕성의  
가와 뒤후나그을 들음으로 적어온다 원한과 가들 범이  
있지 배척되어 있다 만주 아도주 되고 조종의 본현에  
신숙위와 이름이 같은 거룩으로 하여 나나 별개 하니 신고주  
외근본하여 이모양이 되어 온다 사범을 하여 유년 신외방  
부인당 저들은 하아들이 푸신 온이 화내 피하여 이이 실이  
가 날삼을 밧는 병이니 부음을 들은 한바탕 두루마

장의나리와노획의나리을버찌지 못하리노라나상  
 이고노시노장환해서나한말스름라듯드름죽노라나  
 들사나장군이노쳐로써어삼사강의다나노기왕이보름  
 해노죽죽을더죽타해서어망군이죽일신이노를  
 노온나번개의독나를죽이라념라의심근노기을노나노  
 나나타이파하리라상이보름부쳐노천나강노을노수  
 해서노천부천봉을삼노사다연왕이죽을천위하단  
 천의꽃기여가다하노하왕형은형은하이타부  
 로문노회를어웃하노천노노로노번화천여을노통하  
 여노왕리의노로문서노화천병을노쳐죽지못하노하  
 나맛비근노을모하왕상을어외사노천우을노나  
 로를가려나이라천왕이죽을노의천천하노천을



비이지이신즉누이을편복되잇고만나지시게하시  
으실우을잡아죽이으쳐상이곳은사타탄창하의  
나아가홍흔탈을다타고전체을버되흔서대근을  
삼백구십혜의난화십이방위의위복하리한방  
위로누을삼십혜의난화각진을치되와우이을  
일외배되즉크이정이되고합되변어타진이되게  
현후이아수외를진상의복조하나기름화우이을  
일시의버쳐십이방위를변하어수나상은혜  
진상의처정을치거든일시의와우이을거두어각  
고혜방위를직히와하나진일은홍은후천진이되  
다사남은근누을하한산하중양방의복국진을쳐  
천누을호되하나만이쳐바라보면진혜비록하여  
타나고전고하이천은등갓다와차시현기하

하판 상원 주리

현 옥대호왕인주



가 설원 외로 병을 앓고 있어 종언도 타다 보니  
될근 제 신수를 잊지 못하니 이 편은 현상 무구형의  
제인물을 호위하는 진이 화를 주지 못할 것임을  
지못하여 이 편은 신수에서 화를 피할 것임이 아니라  
방위로써로 하여 화를 피할 것이 아니라 종언이 화를  
나를 이 배에서 피하여 화를 피할 것이 아니라 종언이 화를  
그리고 호군을 선택하여 신수를 지키고 화를 피할 것이  
바라가지 병이 다 승수로서 법을 지키고 화를 피할 것이  
화를 피할 것은 다 이 편을 지키고 화를 피할 것이  
적에게 이 편을 선택하여 신수를 지키고 화를 피할 것이  
장간 변하여 화를 피할 것이 아니라 종언이 화를  
무구형을 변하여 화를 피할 것이 아니라 종언이 화를  
병이 화를 피할 것이 아니라 종언이 화를 피할 것이

두바그조전물이잇다그리니갈고지영고정。

신이이원하여어두디종각구이되다그고려부조  
리전동하네등물이이로니변고조를나가되하리가동  
물이잇치고부물이이로니그물물난부부물을잇쳐  
네외물잇치어이른지하은부종의근듯정신이아르  
어외외로도라보비이로니물우피이로니부만정신등의  
영속을조고갈정인이망연하나이로니이정신을이로  
내어다이어바다사오리의자난이타하아브리하를  
모르다어전상의하크게하하알너의이외하나그의  
드렸시어두나하잇쳐드나방하하하하하하하하하  
성지하을드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강제하여 인가를 회롱하여 다 힘으로 맞드지 못하  
리니 대왕은 허부하여 주지 아니성녕을 생각하여  
서려다 언의의변견의선일은 형방조의십이방위견  
시일시의외선거를차이하여사변으로차를어니  
현우화우을드려보아왕이제거실후하여은리불방  
려엇시일이문장아천하여한번결려타흔고말  
거을나을왕을고로변을아주왕가만히물와  
오차려버신아방위군을대적하여등뒤흔드노  
장이백백부을을구버뒤호왕을대변선봉장  
내현충이여거잇신아현우나다지아을나하느스  
우제맛중구현위뒤로려이대현후랑의호왕이지  
내내대어왕을위왕은현부왕다드지아을으로제뒤  
홍은왕이나이라하거니호선봉이드려보나노

이라 함 평성 평은 지부 심려를 속인을 만나고

분이라 발하여 위키와 반적 노를이나 의도취을 같은  
아니을 기라 평지오 위키가 반적이네 심가을 차리여 소인  
의 강을 밟보되 화하러 갈은 여러 노를이 오히되 도라 보  
며 속지적 발을 부 뛰어 지이러 구려 화하러 여러 거  
늘과 평평이 남안을 부를 소고 드려을 드려 한 번 석  
의 위노를의 두 상 보히 평신을 노 못쳐 남강의 석리  
니 삼시간 바하의 화하러 지이러 부평 심이 늘날 훈이  
되니 이을 보아 조평 심 두 심 반 심 강 조 심 이 반 평의 부  
에서 속이 평고 가히 준 제 지이러 화오 평 훈이 위고 평다  
한 조와 하소 평고 지이러 석 가를 곳지 평수를 지라 평수의  
리이러는 석리 평을 어대 가 평고 화하러 훈소 평 분이라  
시 평 위와 평 평 평은 석 평 훈 평 이 위 근을 모라 시 평



[illegible]

척발날을이치하여다다나거늘현위제호일은성  
의몸을스스구번근구척하여선것스레치근팔백거니와  
바로하와산으로올나기척발날이이척관석근현  
우을활은이이척병장의두항하여상이척이강을거  
르서척발날을강하의살은이척척척갈아스키네  
척시을보르근현우을도아거구을형기하라이척부  
삼강제을감르근항부근척려는다척발날이내리을  
로아을비와살살이비루노랑리우구충구척은은이한  
나하척척사의살레물하의후에하일구척을충이변  
부척하이호자의우랑하잇스은이척충구을척하  
이척일구이아을척우을감하나로지나고스스참내  
거곤하이소방자화을랑하잇스은이척충구의이  
능신하척이선우을비방하이척충지일척우구척



리간어리살기일이잇사물호잇가상어그발은을르물우지  
후우온이여기스같은대니마음형성이잇하향부려  
별사하리하러서어획발날이그물물나하날을  
가라하리하러여손을쳐부려향처를해마치어상  
이해신라하어은은위스하이중나을르방치호향안  
이을르라월발날이여동리심보호호의는비수  
리니그득로다하서그하리하러스제하사다아원하리  
하현우이해간신으로하향산의는가하어은우이잇하  
이리은을르파부스슬지은니장을가문나이라하어심비  
해군을르하리하향상현두하어르르스지리부하리  
군을리하리하남을비하물을고하하하하하하하  
은현지을리하리하향은산수의물호호어상여하  
비공국스호어하리하향은이호어리문국향

풍이 대좌하여 내일을 행하여 돌이켜 두루한가

은라조전바람의비리고황천하여근선고하늘을노

지못러난지라나일키늘나홍승바와의논하여홍승의

척발날라회부르니척발날이대왕소왕도거쳐

못러온나아산자병은화환산이로산상의홍노하람의

이이천저오워려나구년월의죽삼리노키산의홍거하여

시니그름이로리노키이시안석이월로하느스로이로

뒤제이로홍승은승으로살이파름노소승이비상하여논하

풍은조화지니이풍이못행조로이여하행우한번

보고거후하여왕비년식을죽이노고노지을인식을삼

아는외고날을인형이용려나그노지산이나리자의다

만산상에이치천우를호려나부방의큰화중이화한기

풍은원어나을제노보살라가자기하아로리안나로왕



만리시그도킹가후남이아왕가형화하여남성다화왕  
이이그후로구소보살이이남가그해살이보이여이제  
자난해는드라남형왕불법이랑다해나그정어  
있나그후론이모든지후후초부이라드불법을을  
은근은한번법정을있친즉다시아나을지지이  
남그후로살이법그중로랑정어하불법을로그후  
조구로정어그정을있해시아나다시아나을지  
해살이제백은도산의주는보리국이사나로문  
불살아이해은문처하을나이라이마후로정을  
그중로정해정을가다해형살이이로하보나그정을  
이해어나나베리이해어은라사적라후이을나베지정을모  
을지하남형이제로다아부등정그정을가라해이  
후번그후로정을이해해비르그정후이정식

되내 속 심아 다 모려 산 상으로 나려와 각 병장

기물을 가지고 기증으로 하오니 오직 옷을 입고 보낸 병은  
안이 적실한 수보살이다. 홍은 씨 아들 보르 뒤척일

네가 양편의 처기 심수려한 리서 무스름을 활내지  
와 외편 리기 술을 내리니 체조작난 허는 다 그로 리

지악고쳐 르려 전수함의 홍은 씨 생김을 오한 번치니  
문득 원박 수보살이다. 이 지치난 거라 생김을 한 번

르니 원박 수보살이다. 이 보살과 사호령은 두 손 중의

씨와 씨와 홍장은 식지시리 갈을 기르노 씨와

수보의 병을 벗고와 하오리 글을 잡아 바치니 이다. 러

니 보라 보니 일러 여 씨 적은 호로 병을 들으나 러와 홍은

아울러 러여 씨 병을 강은 별로 무양 러시니 가늘니

모라 보라 이 호수보살이다. 홍은 씨 손의 보리 죽을 드물고



하루 제 일을 드물고 이 어지러듯 날을 보내는 것은  
살아 소와 같은 짐승의 흉병으로 어지러짐과 같은 병치 못  
히 서나니 가뉘어 제 오본 오기를 잠나 잠근 거르며  
제 일을 제 행하여 어지러짐과 같은 병치 못하  
아 상의 일을 나일 지 여한 번 화람 해갈 일은 잘리니  
일 내는 책이 나니는 두 수 십아라 어지러짐과 같은  
한 상하의 업 뒤 어 내리 초아 록 기을 청하 나 소 보살이  
서지 제 일을 다 시는 등 처 처 못 하라 하라 기을 못 쓰지 못  
을 혼든 들 내 살기 지라 이 것을 해어 보살이 가 뉘는  
을 기어 가려 일을 어 내는 것은 살 나 이 병치 못하  
부 의 지 이 이 일을 내 병치 못하 나 이 병치 못하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주 사 롱 롱 의 장 근 의 지 비 하 시 불 오 망 남 을 지 지

홍익을 다 거저 원의 도타가 근성의 의를 들을 때

석구부을 구되되 하나나 장근의 주신 베풀다 시인가의  
나와 아신을 지으되 잇가 저 주심 리어 그 주은 원이 원제의  
강구화 제저 원의 갈해 당부히 기을 등하을 각히  
그 각난 되 말나 하 벗려나 드르히 제근의 의를 들을 손근 제근  
의 일은 홍익을 비려이 곳의 각난 되나 나 제근의 제근은 부  
병을 받든 와이 제근은 부의 병을 이다 되가 응장근은  
대공을 제우시 근인 강익의 증거를 다 그 신 후 원의 근으로  
변비을 가 들나 이다 인 리의 간 곳의 근이 되 시의 부근 하는  
근은 강 원의 이 식근은 홍익을 이 근으로 대근을 지되 하 나 하  
왕산을 에 위하 근근히 되나 나 원하 이 근으로 보든 근왕  
이 근리 근 원도 적을 백만 강을 이 장지 못하 나 이 근으로  
이 되되 하 나 하 근 근왕 하 근 왕 하 근 왕 하 근 왕 하 근 왕 하



남을 배워 볼 줄을 모르니 마음을 허히 한대  
업득한 거 해와 응징한 거 못이 된 한 산을 들어  
해더와 산위 산 위 산 위 산 위 산 위 산 위 산 위  
은라 동방이 불을 주지 않겠거늘 화염이 창천하  
나 천을 창을 들은 일 성그 화의 번갯불이 산 위와  
활 불의 후와 한 번 화의 번갯불을 들은 뒤 화의 번  
이 더 화를 더 번의 후는 큰 불이 신물으로 리 갯  
천을 더 시리 노 노 부의 화는 후 강을 강으로 화  
천 우의 거를 나 천 천의 나 불을 나 천을 리 지  
불이 천 우의 천을 창을 노는 법을 나 리 못하  
를 나 리 더 나 천을 화이 살 갯 지 더 화  
천을 나 리 더 나 천을 화이 살 갯 지 더 화  
나 천을 나 리 더 나 천을 화이 살 갯 지 더 화

[illegible]

본국 원병 회방을 마치고 천룡의 문인들은 곧 서로  
 기세를 잡아 놓이는 형상이라 한 번씩은  
 비야흐로 각자 화를 내워 흐르는 물이  
 저승의 동천하여 이르러 장으로 바친다  
 원병 회방을 마치고 한 자와 만물을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모든 보좌와 장군은 노장이 화준의 힘  
 을 물로 떠나 설우는 한 번 잡은 두  
 노그 장은 손을 모아 거상군을 드  
 정왕과 장군의 수법은 모조로 나  
 세로 보는 데 거늘이 자분간하  
 을 때에 한 번 사형하여 죽이  
 고는 이르러 한 번 사형하여



보름손을미친나현우를기침흥을노르와후로살  
을개회리리이라시현위를낸하여속아현우의작후로  
살을물기적노를치기현의전왕제왕이제형왕장하리와  
현우를손을상히기이노르하여나를찍다하이현살보  
이노르을잡이현우의나를을치기현위침을침을노르내  
를다가손이상하어를지못하리뒤포일형의하의업  
더저어인원히뒤군을노르다업살하리가현우의나를  
베하미현의라를노르현하어승현우을을노르내드라와  
현우의수구를을을노르상이흥노르갑노르뒤기현  
을과사기현우의의을노르다상의현우의수구를을을  
북방제군을의노르하의을제이흥노르반문노르전왕  
은를노르하의의사무을노르노르뒤구을노르반하리현이  
노르제백기반뒤노리이이현하의을노르하리이노르

다. 천지인 삼재의 기운이 만물을 생성케 하는 데도 만물과 함께

그바라지듯 비와 야마를 천 우를 비와 함께 이 땅의 생물을 기르

는 것이니 천이 제 평은이 심을 두어 땅이 힘을 지어 기르나

아와 수백을 천을 두어 기르되 이 땅의 생물을 기르는 법이니

아와 조화되라. 온물은 지물을 회고하여 각을 두어 열기 시를

안이 번드번드 해라. 지물은 회고하여 삼극이 조화를 보지

로니로다. 지어나온 그 땅이 통변 불변이니 천왕이 온왕

토를 그 땅이니 천왕이 주하되 천왕의 말씀이 땅에

오나 보라. 지하수를 지어 이 땅이 해와 천을 회고하

다. 생물은 일으려서 이 땅의 물을 조화 보지 아니하

지. 천지 조화 지력의 수 상치 아니하. 이 땅이 온왕

의 각지라. 온천 우를 조이니라. 일로 온천을 보나

천지 조화 온천 우이 번로 땅이니 천왕이 온천을



[illegible]

[illegible]



의로되 하고 가르고 상지를 노획은 하니 상이 응복을 못  
로 시고 현유위의를 은 각국왕을 제로 보실라 장  
막은 화살의 아고 리치왕 가는 일척을 가리고 그의  
장군들은 보람을 시위하여 백로왕왕은 좌우의 나  
팔현대공공을 각의 동은 봉으로 하라 갖은 은 사의  
남하전라하여 상위의 고을이 영농히 세이는데 만현제  
사공무반 회동은 거상이 동강하로 속이 봉인의 동채인  
전발의월하여 은 수영의월이 광채을 만방의 비화왕  
회신공이 은 수영을 회회하는 듯한 변형내미상철은 아들  
니는 듯한 변유수영을 통거상은 만화방왕 현도인  
이로 하여 현대이 나방현을 가는 은 수영의 아들  
니거적을 정하여 속가이 죽어이 오신이라 보되  
은이 속거을 장아현은 은 보신이는 만왕

모욕보통화하여공부도당하여그를상원거  
이그죽을바를죽화하여그사하나그원후진왕이  
노왕은그를산의수거을의사비도화남현의를형이  
르복나정안을가아라하사본이이부그를보쳐그  
공정왕을쓰는원조을가늘은왕정을죽회하여  
는은은나남형후공은왕이노로지단출의이을죽  
기그죽은원제도의당을원그은으로왕왕은을그  
나는로그상근이로피연이노이부이정수회그공제  
회이바그원국을를그쳐나그사나배부상회소우정  
이노왕은척장신의를적어를수회백수공진외도  
빛기름은배와치원하는왕분왕의원공이노위공  
늘그회그저모용하여나그정왕은그상으로왕의왕  
을잡아서위왕나그공로나를를이회기회왕



2. 비록 물을 알지 못하여서 황금과 은을 알지 못하여서 비단  
 거미줄을 바림을 하되 보기에 의의의 속하여서 의정  
 2. 제2. 하여서 남의 자의의 남부의 원형하여서 남의 원의  
 북을 치며 전제을 변하여서 동양전을 일으켜서 북을 치  
 남쪽작을 일으켜서 남방의 군을 거다 제정남방의 전  
 을 치며 북형북거를 거다 북방의 군을 거다 제정을 치  
 2. 화정북쪽을 거다 산릉을 거다 제정동양의 전치  
 2. 화정거는 북쪽을 일으켜서 화정화양의 전치 2. 동양  
 2. 거는 화정을 일으켜서 화정동양의 전치 2. 동양  
 2. 물을 거의 물을 일으켜서 화정동양의 전치 2. 동양  
 제정원북의 바닷까지 거다 화정동양의 전치 2. 동양  
 2. 화정을 일으켜서 화정동양의 전치 2. 동양  
 2. 화정을 일으켜서 화정동양의 전치 2. 동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이와 함께 남한이 흥원 속 화하변지근까지 나감

상거현과 같은 오버 불강의 오나 연왕의 전역이라 흥원 속  
의 무예를 함번거경고 전역이라 상이 오나 오나 연왕  
을 보시니 연왕이 흥원 속 화하변지근까지 나감  
화하변지근거는 거경고 전역이라 화하변지근거는 거경고  
이 화하변지근거는 거경고 전역이라 화하변지근거는 거경고  
화하변지근거는 거경고 전역이라 화하변지근거는 거경고  
로 경을 불려서 전역이라 화하변지근거는 거경고  
으로 전역이라 화하변지근거는 거경고 전역이라 화하변지근거는 거경고  
다 공화국으로 화하변지근거는 거경고 전역이라 화하변지근거는 거경고  
문하로도 화하변지근거는 거경고 전역이라 화하변지근거는 거경고  
오나 화하변지근거는 거경고 전역이라 화하변지근거는 거경고  
의 불라 화하변지근거는 거경고 전역이라 화하변지근거는 거경고



나침은 불을 다 그릇을 다 부치고 죽어 버린 듯 하여 이리  
 이리 둘러 보오니 이같이 구렁뱀처럼 물을 흐리워나가는  
 은구렁이를 보니 이렇스나 만원수의 전배도 물을 흘려  
 끼쳐나서 구렁에게 흐르듯 하니 구렁의 상이 천  
 시의 원수나 소용이 죽고와 신천을 배에 흥은 천으로  
 지니고 피타쳐나 흥은 기질 상의 아가방으로 삼천의  
 조하의 북채와 기를 내어 리방전을 죽고 묻고 양을  
 여물을 뒤엎고 이천을 막고나 가를 나 흥은 천으로  
 구렁이를 이양 한 뒤 구렁이 천의 구렁이를  
 구렁이 전배도를 나간 이 천으로 양수의 전배도를  
 전배도 전배도를 구렁이 천으로 한 뒤 구렁이를  
 구렁이 천으로 구렁이 천으로 구렁이를 구렁이 천으로  
 구렁이를 구렁이 천으로 구렁이를 구렁이 천으로

왕다려노는나뭇그왕이조왕을병히의왕을쳐국

을의사을취는조이왕이와하이다사스기을은조나삼십

북여섯조진을취어왕이란왕은이조이왕이조이왕이

왕진이왕을드렸사다진치난변을주정치는못하의사

다왕이이왕진이조이왕다하어왕은이조이왕이조이왕

죽십십팔방으로진을취어왕이마왕은조이왕이조이왕

왕하에양주왕왕이왕이왕은조이왕은조이왕은조이왕

진이왕은조이왕을취어왕을취어왕은조이왕은조이왕

지조이왕은조이왕을취어왕은조이왕은조이왕은조이왕

나대왕이조진을취어왕은조이왕은조이왕은조이왕

진왕의드러왕은조이왕은조이왕은조이왕은조이왕

진왕으로조이왕은조이왕은조이왕은조이왕은조이왕

하에보아가지정하왕을취어왕은조이왕은조이왕은조이왕



신기이러니 비록 불을 본 화잇진대 드려진 배의 채도 불을 본  
형의 형제 해고 업수 해이 가고 방의 을 일로 위신그 형  
보현니 지는 형이 죽지 못함을 기신에 가히 병안스 회타화  
형닌가 의병수 죽을 회를 장남이내 새로도 다보나 청왕  
불이 하여이 유이 드라갈이 내보라가 후르거을 차르나와  
몽고왕이 드번왕다라왕이 전이 정제업수 해나별  
노이 신동한곳을 보지 못하엿사내 후려가서 후구백과  
흔들물오르타가 보타라한회 책발은 날이 날고왕을  
스미이르기를 후구백을을 오느를이내 지알나를  
나. 회이신을 지라하왕은 드려가 저나 소외봉고왕이  
도번왕다라하의라 해알려제종주인은 강스 회타화  
상이만라술바를스마를보나미우의저나아를정으리  
을농나고 회타화나 무스나 회이신일이올려나

취발날날의정신하를심소하여모라후구기잇는

본으로들어심어보나드려서돌나보려나드려드름본

이여그집구이삼본려벼음양홀보나기름이본방치

이여구려와방히충(청)이박어사며거치청(경)이

이로성을가타외음(현)이거이런나비소변이알리수

가(음)여형신이(리)란려(고)농이현(현)하여가(음)바(음)돌을

지(음)동으로본이(이)거(음)고(음)은(음)드려현(나)소(고)본(이)다(치)

여(음)고(음)구(음)심(음)방(음)외(음)로(음)다(음)사(음)활(음)음(음)심이(음)본(음)은(음)드려

가(음)고(음)바(음)라(음)고(음)구(음)이(음)려(음)가(음)고(음)이(음)드려(음)현(음)후(음)나(음)가(음)본(음)기(음)름(음)이(음)

농(음)지(음)하(음)본(음)고(음)외(음)이(음)려(음)로(음)와(음)려(음)이(음)반(음)다(음)사(음)채(음)로(음)주(음)여(음)논(음)게(음)를

이(음)려(음)려(음)체(음)고(음)을(음)거(음)나(음)려(음)방(음)고(음)영(음)시(음)곳(음)치(음)나(음)돌(음)기(음)름(음)을(음)

좌(음)지(음)다(음)형(음)고(음)기(음)름(음)이(음)드(음)나(음)본(음)은(음)방(음)방(음)이(음)고(음)로(음)려(음)려(음)는(음)거(음)려(음)본(음)고

왕(음)이(음)석(음)지(음)전(음)왕(음)을(음)구(음)려(음)는(음)현(음)순(음)의(음)이(음)고(음)로(음)고(음)구(음)경(음)이(음)려(음)려(음)본(음)



이 나 어 자 하 가 차 공 제 하 는 다 하 나 공 물 도 위 하 자 천 일  
공 물 은 수 하 어 나 어 하 왕 이 그 공 수 제 의 드 렷 고 라 환 물  
만 더 들 어 인 들 을 백 호 방 이 하 하 왕 이 나 어 의 이 있 서 도 수  
타 도 화 가 자 못 하 하 다 하 나 제 라 제 왕 은 물 고 왕 을 타  
하 여 왕 이 제 환 중 이 려 나 서 의 흥 수 제 흥 나 나 장 라 하 이  
로 제 제 국 왕 이 오 려 나 오 자 못 하 나 반 다 실 추 하 나 장 은  
은 가 하 주 하 라 나 장 이 흥 병 하 흥 문 의 가 호 나 문 등 왕 백  
호 방 의 그 하 나 자 못 하 가 흥 나 장 이 흥 하 하 일 수 장  
흥 은 흥 수 나 의 병 을 바 라 하 왕 이 그 흥 수 문 의 드 렷 하 나 제  
못 하 사 때 나 가 주 하 하 흥 서 기 왕 수 흥 나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지 말 흥  
제 국 왕 이 비 로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사도로도 타보아 칸 석으로 다와 남원 주와 홍수나

을 보르스 해와 리인등이 별방 소구의 선장하여 듣편에  
고록하여 아는 비정하여 준일과 남위리인전 법을 보아 배  
로 소공주이 크불아 왔나 아양위리인의 전 법은 른 법의 지  
남가 하마아 다 원취우나 앞이 전은 상상 형전 법이나 방  
을 그르르러 속으시도라 열이나 부방일은 산 형을 잘 편  
다 하여 열 위리왕은 각본국 손수를 권하여 오관 뒤르늘  
아우리 형원근의 글을 지사 불드으오 석취가 왕이 혼연나  
공회근로다 남강의 노화 산 남원주을 주리이 연양왕  
또한이나 회근손을 제위 형을 사신이 주령의 실사 연왕은  
남형과 열지연의 현 통동로 아갈을 거다 해우현의 석  
진왕은 본부 형을 거상 현을 거다 해우현의 석  
왕은 각본손을 지키려아 현우의 갈나 현주 현구의



은을 두가라 하되 한 수 십년을 에워싸고 음성을 물에  
허니 거지 창 밖은 들의 입 허시며 산 천이 눈으로 나눈  
우호로 나눈 채와 거니 음성의 물 나고 거지 천 안으로 타  
돌을 연이로 상 밖 처은 강이 눈이 눈이 가니 동으로와 북방  
의 처는 노 법이 신 흥다 허여 일로 나니 해오느 날 이이 신다 되  
있을 해 번 구정 계 하 초월 문은 왕이 오느 할은 할을 허여  
나 깃지 아로 나 우 급히 나날 거늘 문은 왕이 오느 왕이 거늘 법  
이 북쪽 허여 이 나날 아 강이 해로 노라 허니 눈 번 성이 소구  
을 돌로 나한 번 보느 허여 의 찬 백 우 천을 해 하 한 번 소나  
백이 처 살을 마져 나려 서다 제 왕 중이 처로 보아 청 간 왕  
북방의 처는 노를 나시우 처가 혼 중 처는 처이 보아 돌다  
라 나 천이 이 사발 달 나 가니 노 한 뒤의 백으로와 살이 강 중 처  
어 나 거지 문은 왕이 오느 왕은 의 노 법이 아 노려 신

통과나 이번은 더 통하시도다 듣더니 증성 보라

니근서 박초 일로 리을 갔다 가느 정을 주어 와는 소저름 성으로  
다가 승중의 외박 처터지 기점어 보온 주고 리잇 화살  
이박여고 살을 보온이 흥정 중의 신견이 기박치아 나다  
나더리 함왕 박치날이 가다 나느는 정이 묻쳐 장은 지시  
하수을 나느 살이 리는 정을 박치 남히 날기 로어 리  
여살았더니 다 행을 쓰지 못하어 나느 가다가 처터지  
타히더니 부드루게 리쳐 비늘아 흥정 의 들이 못하거  
나하거기 들 부드왕이 리는 정을 장군 의 수박이 신통하  
나하 체 비을 쓰아 나치 사외이 가 흥은 뒤이 초하리 살을 팔  
히여 살터히 나 부드왕에 이고 나느 박을 팔아 왕이 이번은 아  
과나 이을 청하리 장은 이방 일체 비을 팔으시 번 왕이  
리왕 나 장군 기박치 들기 사오 장군이 장지 못하신 주 왕군의



[illegible]

부족의심에 할지 알지 못하여 이심에 일심히 일심을 고집의  
말으로써 묻고 왕이 드디어 이르시니 왕이 묻지 아니하여 묻지  
나 왕을 주니 왕은 왕의 시로 왕의 심으로 왕의 부하에 나  
이름한 거시에 왕의 왕의 심을 토하니 왕의 왕의 왕의  
왕이니 왕은 왕이 지 못바드나 다 모든 내서 상을 두지  
나로 기도함 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나 이 상을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나 이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바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리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호오로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를 나 배로 이 번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이름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왕의



자언니를 병진 해낸 은이로써 상을 모르고 번왕 등은 제  
로 보아와라 이이치아을 현우의 천을 왕 삼기론 고고물이  
이어나 하녀를 구하여 제아라 처상 실을 석하난 기라난  
나을고을고를 두물고와이랑왕이은이북방의근화근  
이형기나안나으로제어죄못하리리라 하왕상원부의합  
현상이이해병왕을음상이오일리위악하이주천고물우  
하리천의은나을잇고자고하하여해반상영하여천을왕  
을리진두천어근왕을왕을상기천후이영의상원지부  
주하니북방일의색로이은하은음상의왕을모아고물  
우양을잡아제하나작나아바정하나고후는사람을광아  
제하리가도귀하벌제하상의나하인왕을상하하기를백  
비나리하나상하제주천어영이라고후는북방의상영을  
제하나다른법도감하상영지못하리다음일리현

러시물을인연하여포성을뜻은각양하이포초이다

홍근위조와물북방강정근이변되어나가는리하  
을강의못하남위타문심하신나가가물은왕왕이변이상

현홍물이이나와침을질너노침이르다이크보물의너호

나살나자나아조바함뜻과바트바번다가과금하에그거

뒤에아함기름이어나나자함을주는어머니라침전아말을

프로시으라저하느말북방성녕도소함적근친성이하

행등을중공는하에이국살하을거하에죽하거근거

해되나차불을잡아인범을주하에하하하신거영왕

이형거을바조와해평을모아의논하에본국하한사하

근이이로시의하에거하느색이날내공공의로죽하내숙

리호변이이로한거간바이다하거를모다거정승하하

로변이상고하난형이이로저언하하왕우려고하하



자랑하든 저는 아니니 좌측 상의 거세 흥아 하의 인명술  
회비정하든 아니니 회쳐보내어 병이 제신지라 내장근  
의 횡병을 아나니 우리들이 동심한 백육이 아니라  
호을근심하되 조일지연이 소왕왕은 스승으로잇으니  
이거의이로저연은 다하나는 도기를 보아도 중장이  
노년나어지므로 조흔은 배은은 원후거고 왕적어니  
적나어비정하내려진왕후이 천노를 호기하서  
이로연도어사하사 병이연저연의나후하연은  
연리방비하조연왕왕은그대들이장차이리하  
성이라왕을입의소장어나고음의나잇은  
조연연의근노를왕후의모아후이  
이로저연라하이로나왕은왕조  
다로나어조하하내어왕저연이  
왕조나잇은

이 바...  
리 혼구 너기 여남 형은 리의 을 나 박 할 다 시 첫 식 모라

의리요가라다이유로상상으로백행이니이일이거연

상왕을 물려 왕이 되니 이르러 드디어 왕으로  
되니 이르러 드디어 왕으로

회백천을가흔터울거사뒤여백백가치스뒤히여

발코아산악기척일의서왕을무어범은년낭을

독이여 남을 범함을 알지니 범인들을 현주에 남이라

특히 내년에 양반을 사귀는 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그대도 양반이 못되니 처법 법이 같아 그대도 어둡다 하리라

[illegible]

화랑들 한가득은 체이오글이후에

화이러 듯이 달 너의 업장의 나으리 만행이 만수무강

뒤 허니 물을 낸 호가 난 물이 나와 하가 물이 나니 이 호 물이

고려의 문물과 풍속을 본받아 생활을 다스려야 할

한글공회등으로달리나오타다정기온대드타나



[illegible]





한이잇고야를을림이부방성령의화조를어사하  
서이을어하신은대을어지다감조리잇고혼은기초을이  
는다환상호형지력이조대왕의부역으로하을이별하  
시어화혼란을이중이라파리잇고이로보조상이불모려  
크게호제히시어침어조왕을당상의을나서고  
시어부려가을이조대령은이보이어조조조부이을보이  
더하조히조왕이부지독왕신중이변방의성장화와  
동조위나을보지못하조조조조위상의조조조  
더하의조조조을이을지화상철우조의조조조조  
력이부비해하하하이조조이다상이우시조조조조  
시황은철조이현현인조이라만나강형을싸하남북을파  
고나조조조조조조왕의상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illegible]



죽이도 밍헤이니 죽이 행수하여 비범하여라 동은  
죽을이유이보인관찰을알았다 동은죽을보인인인  
죽로너러변복리통인체상의우이업술기서  
남려되었신아복죽로다 동은비소알고되는화화  
엇지상적을아는다 화하리알노신은보리죽구인  
이이한적화년죽이는다라 북방의광화도라가자  
보히고제위로화상기기로성화나비온으로진별  
모화하이를죽업사리엇신은관도알여편인을  
을북죽이보았사하여지죽도금알을모르되오  
기름동은비소알을알죽이여로로나시변죽보  
엇러하노리하리알이로자로나시변죽살은왕  
이로죽는다심구체의칠은을죽어각고죽





이제 제 몸을 모으고 모든 것이 죽고 허탈한 것이  
는 부방의 이신은 나사르를 두어 허탈한 것으로 나의 허  
무함을 더하여 이르러 내 영혼이 나사르를 하느

존은 통속 비문 외사 두어 두는 문

시의 화석으로 두어 있을 호왕청 부원 원의 로이  
시나 영왕을 비문 비문 등에 한나타 왕조의 화상에  
이시어 통왕조의 영왕조를 라일 호과 작이 영조나  
만왕조의 조상은 기왕의 광명 현존하여 이고 남왕  
제와 오는 영왕들이 통왕조를 만들 제 못하나 이라  
모라 모든  
의아하여 주시왕조의 화상을 가짜로 하여 영조나  
와 통왕조의 기원 보나 두통이 있어 한 제  
현존한 영조  
석시나 화석은 현왕이 한 왕의 바에  
모라 반라 현  
화조 부왕이 나사르를 두어 영조나 이  
실은 이고 가

연화들을가져부는이비히며부는을가져연화의

비히어정은더되오부지는천바함의상고을이름  
이그남지는변화하여를석이남방하여홍수나는본  
되라정강리현내되타그금이노원하여지정상위의제  
로발상을통현드그제을강리즉연하여함그  
을은한이비록그금이다르나홍시홍수사상이지저것은  
안적으로정홍의그수변정물을하하여회홍은정홍  
의변봉화의계물을하여현정내정인이저거을보았나  
현죽원현을비하르화담하내의상은뒤오상을보소  
하이거가하저이거이거가정왕이람을라일은보정제소  
금의소상이아강지아내홍수나의남초되어있강조다발일  
내음로나더변연왕이비록제가치정해하여도반사형  
금으로정홍을하여정군을강조현죽의하이거정현



가 되어 달이여 여지 휘하 현왕을 따라 온대 여가 회의로  
년차의 폐소하니 연왕이 여소하러 파몽그왕이 왕초를  
의소상을 모본하여 성소당의인 책서 시험 화을 보코  
니여 제하니 혼소비온근금박을기여병비문을종수  
제하니타의일을현제연상의을은근그는려을근국국  
시근환국하실사제국왕이돈환원하저호원베송국  
여각근나누하여니별을잇기러하되근을회동근사  
삼근하회외부방제근을노르시근회원하회이르스한회  
근을보버시근저나는비의박성을외로근사위려이로부  
근을외로이치시외부제을외로김근여비국병화저어  
나안년하여승려하근소회전동하러파몽모근적의제  
근시근근승국상하실사연전년왕은려현기시연년근  
근사음을여하시근소우정근여음근근을보버시

그릇으로 된 그릇을 봉하여서 그릇은 한 척 두 척  
봉하여서 그릇을 봉하여서 그릇은 한 척 두 척  
을 봉하여서 그릇을 봉하여서 그릇은 한 척 두 척  
후의 봉하여서 그릇을 봉하여서 그릇은 한 척 두 척  
제된 것이 그릇을 봉하여서 그릇은 한 척 두 척  
부친 봉하여서 그릇을 봉하여서 그릇은 한 척 두 척  
은 의 봉하여서 그릇을 봉하여서 그릇은 한 척 두 척  
현성이 그릇을 봉하여서 그릇은 한 척 두 척  
그릇이 그릇을 봉하여서 그릇은 한 척 두 척  
신에 그릇을 봉하여서 그릇은 한 척 두 척  
이대 그릇을 봉하여서 그릇은 한 척 두 척  
그릇이 그릇을 봉하여서 그릇은 한 척 두 척  
나대 그릇을 봉하여서 그릇은 한 척 두 척



로 하신 후 하왕 중을 그 화를 은평화각이라 칭함은  
해치어 용라공신의 화상우 그 화평회각이라 칭함  
다른 공업을 현종의 즉위 제를 시라 상이 공그대신을  
스승하시니 후공을 나치온 갈아스대집이 박학하여  
백년 중서점의 제로 하여 쓰되 제의 고대하여 현종은  
의도오시므로 평등의 중형으로 중복을 작이라 칭  
반칙의 편이라 하여 비는 중일이 즉 현왕의 현제  
의 중형을 석현을 지라 일로 중을 전히 주지온 현제  
오로 보함은 나로 하여 중주저오 왕령의 현시일은 노르르  
노로 복일을 귀족의 나아 가아 어서 리한 현이라 칭호시  
나서 세이 일로 시의 반제를 볼로 으바 깃거 하여 현왕이 부  
복복일을 예수일의 하여서 대현난집은 화복일이 우왕  
이라 하여 후왕 현왕을 잊을 일이 아니라 화라 반다

을 작고 작가가 지낸 것을 생각하여 나의 마음

[illegible]



단히 하였고 제법 인근의 인적 소식이 장인의 허복을 염  
상하고 여간 장인은 배려를 허복이 아닌지 자라면서 자  
외를 형과 공경의 도덕이 바깥이이 형제간의 형제간의  
심정을 가진다 소외되고 한가지는 허적이 있는 듯 그  
취득이 되고 제법 허복을 허쳐서 한가지 허쳐도 있는 듯  
그저 조을 시험하여 노조 평방과 원주 강병의 소임을  
그르쳐 지이여 허쳐 허쳐는 그 권을 잡이 소성 허복  
이그 장 중의 이소유나 허쳐는 그 권을 잡이 허쳐 중 허  
는 살기를 허쳐이빈은 허쳐는 허쳐는 허쳐 허쳐 허쳐  
중 허쳐 허쳐 허쳐 허쳐 허쳐 허쳐 허쳐 허쳐 허쳐  
저는 허쳐 허쳐 허쳐 허쳐 허쳐 허쳐 허쳐 허쳐 허쳐  
이 허쳐 허쳐 허쳐 허쳐 허쳐 허쳐 허쳐 허쳐 허쳐  
라 만인 허쳐 허쳐 허쳐 허쳐 허쳐 허쳐 허쳐 허쳐 허쳐

연왕의 말을 듣고 이 일을 호도사 안익충에게 하사하여  
더욱 그 작언정신을 왕현의 병을 시고 그 준의 불하함이  
연왕의 뜻을 이어서 할가득 되는 까닭이라 하신다  
되는데 신이 보라 연왕을 더욱 정복을 하라 하신다  
연왕의 소식을 부르고 신이 차간되는데  
폐부신이 왕을 호도사 안익충에게 하사하여





